

종합병원 간호사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 임종간호 태도, 간호전문직관이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정유리*, 임효남**, 이미향**, 김두리**

*건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병동 간호사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mail:godrhksckcf2@naver.com

The Effect of Perception of Well Dying, End-of-life Care Attitude,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on the Performance of End-of-life Car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ung Yuri*, Lim HyoNam**, Lee Mi Hyang**, Kim Doo Ree**

*Nurse of the Orthopedic Surgery Ward, Konyang University Hospital

** Professor of Nursing at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웰다잉 인식과 임종간호 태도, 간호전문직관이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임종간호 수행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D광역시 K대학병원에서 임종간호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무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186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 후 SPS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2.81±.35점, 임종간호 태도는 4점 만점에 2.67±.19점,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52±.36점, 임종간호 수행은 4점 만점에 2.83±.45점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은 웰다잉 인식($r=.213, p=.004$), 간호전문직관($r=.345,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전문직관($\beta=.28, p<.001$)이었고,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13.9%이었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 올바른 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노력과 임종간호 수행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서론

생명 연장 기술 발달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임종에 대한 관심이 환자와 가족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옮겨져 종합병원에서의 임종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다[1]. 임종 장소가 가정에서 종합병원으로 옮겨짐에 따라 간호사들에게 임종간호 수행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2].

웰다잉이란 자기 조절감을 발휘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편안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3]. 간호사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환자를 돌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4]. 만성질환의 증가로 종합병원에서 임종이 자연스러워지는 실정으로[1], 종합병원 간호사의 죽음 인식을 올바르게 함양하여 질 높은 임종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 임종간호 태도, 간호전문직관이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여 임종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웰다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과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 질 높은 임종간호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본론

본 연구는 D광역시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며 임종간호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무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18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이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9.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81±.35점, 임종간호 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67±.19점,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52±.36점, 임종간호 수행은 4점 만점에 2.83±.45점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제 1저자 정유리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다잉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고, 임종간호 태도는 근무부서($F=2.42, p=.01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결혼상태($F=-2.40, p=.018$), 직위($F=-2.37, p=.019$), 종교적 신념에 대한 태도($F=-2.04, p=.045$), 임종간호 관련 교육 이수경험($F=2.19, p=.030$), 직무만족도($F=14.9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임종간호 수행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나의 태도, 웰다잉에 대한 나의 생각, 직무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은 웰다잉 인식($r=.213, p=.004$), 간호전문직관($r=.345,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종간호 태도($r=.051, p=.493$)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전문직관($\beta=.28, p<.001$)이었고,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13.9%로 나타났다.

3.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임종간호 이수 경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8.4%였고, 임종간호 이수 경로는 수업, 병원 직무교육, 보수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웰다잉의 올바른 인식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간호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임종 상황을 많이 겪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위한 임종간호 교육을 직무 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간호 실무역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간호의 전문성,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독자성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역할 수행에 있어 많은 제한이 있고[13]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인 상하관계의 인식이 내재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4]. 따라서 전문인으로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독자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임종간호 수행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올바른 전문직관 형성을 위해서는 간호사 개

인의 노력과 더불어 바람직한 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올바른 조직문화 개선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 및 임종간호 태도, 간호전문직관이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임종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웰다잉 인식을 확립하고 높은 수준의 임종간호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임종간호 수행의 효과적인 증진을 위한 방향 제시와 임종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기반 마련을 위한 자료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종합병원 환자 특성에 맞는 임종간호 질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J. H. Kang, Y. M. LEE, H. J. LEE, "Effect of the Awareness of a Good Death and Perception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on Attitudes of Intensive Care Nurses toward Terminal Care",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 12, No. 2, pp. 39-49, 2019.
DOI: <https://doi.org/10.34250/jkccn.2019.12.2.39>
- [2] S. S. Noh, C. K. Lee, S. Y. Hee, "Predictors of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for Cancer Patient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 9, No. 2, pp. 61-70, 2016.
- [3] K. J. Lee, K. H. hwang, J. R. La, J. A. Hong, J. S. Park, "Concept Analysis of Good Death", *Anthology of hospice*, Vol. 10, pp. 23-39, 2006.
- [4] J. H. Youn, J. Y. Ha, "Nurses' Awareness of Death and Meaning of Life",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0 No. 4, pp. 381-388, 2013.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3.20.4.381>
- [5] E. M. Hong, M. D. Jeon, E. S. Park, E. J. Ryu, "Death Perceptions,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 Death in Oncology Nurses", *Asian Oncology Nursing*, Vol. 13, No. 4, pp. 265, 2013.
DOI: <https://doi.org/10.5388/aon.2013.13.4.265>
- [6] K. A. Chi, E. J. Kin, "Factors Influencing Nurse's Attitude Toward Hosp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4, No. 3, pp. 285-291, 2005.

- [7] Harrington, K. J., Affronti, M. L., Schneider, S. M., Razzak, A. R., & Smith, T. J. “Improv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about end-of-life nursing on a hospital-based palliative care unit”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Nursing*, Vol. 21, No. 4, pp. 272-279, 2019.
DOI: doi.org/10.1097/NJH.0000000000000523
- [8] Detering KM, Hancock AD, Reade MC, Silvester W. “The impact of advance care planning on end of life care in elderly patients: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MJ*, 2010;340:c1345.
DOI: <https://doi.org/10.1136/bmj.c1345>
- [9]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10] Braun M, Gordon D, Uziely B. “Associations between oncology nurses’ attitudes toward death and caring for dying patients”, *Oncology Nursing Forum* Vol. 37, No. 1, E43-E49, 2010.
DOI: <https://doi.org/10.1188/10.ONF.E43-E49>
- [11] Brennan, M. D., & Monson, V. “Professionalism: good for patients and health care organizations.”, *In Mayo Clinic Proceedings*, Vol. 89, No. 5, pp. 644-652, 2014.
DOI: <https://doi.org/10.1016/j.mayocp.2014.01.011>
- [12] Y. J. No, S. S. Han, J. S. Yong, M. S. Song, J. U. Hong, “A Comparison of Nursing Interventions with Terminal Cancer Patients in a Hospice Unit and General Uni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14, No. 4, pp. 543-553, 2002.
- [13] H. J. Han, “*Effects of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erceived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Perception of Shared Medical Decision Making for Clinical Nurs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Seoul, 2022.
- [14] K. H. Jo, Y. J. Kim, “The Impact of Nurses’ Attitude toward Dignified Death and Moral Sensitivity on Their End-of-Life Care Performance”, *Korean Society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6, No. 4, pp. 223-231, 2013.